



Market Index / 27일

코스피지수 ▲ 2332.79 +15.65	코스닥지수 ▲ 704.19 +9.51	유가(WTI, 달러) ▲ 79.56 +2.07	환율(원)	1USD 1294.26 100¥ 974.33	팔매 1249.74 940.83	1EUR 1382.15 1CN 191.77	팔매 1328.23 173.51
---------------------------	-------------------------	------------------------------	-------	-----------------------------	----------------------	----------------------------	----------------------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사업장 임차”

중기부·통계청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도내 사업체 수 1000개·종사자 수 5000명 증가
보증부 월세 61.9% 가장 많아... 평균 월세 92만원

지난해 제주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1년 전 보다 1000개, 종사자 수는 5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6만7000개로 전년인 2020년(6만6000개)보다 2.0%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11만7000명으로 전년(11만2000명)보다 4.1% 늘었다.

전국으로 보면 소상공인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모두 줄었다.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411만7000개, 종사자 수는 720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2%(1만개), 1.1%(7만7000명) 줄었다. 사업체 수는 교육서비스업(6.4%, 1만1000개), 숙박·음식점업(0.1%, 1000개)은 늘었고 도·소매업(-1.6%, 2만2000개), 제조업(-1.0%, 5000개)은 줄었다. 종사자 수는 교육서비스업(3.1%, 9000명), 숙박·음식점업(1.1%, 1만5000명)은 늘었고 제조업(-6.6%, 8만8000명), 예술·스포츠·여가업(-2.2%, 4000명)은 줄었다.

사업체당 창업 준비 기간은 평균 9.8개월로 전년과 동일했다. 창업비용은 평균 8800만원으로 이 중 본인부담금은 66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창업비용 4.3%(400만원), 본인부담금 1.0%(100만원) 늘었다. 전국 사업체당 연매출액은 2억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600만원) 늘었고, 영업이익은 2800만원으로 39.8%(800만원) 늘었다.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등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했다. 사업체당 보유한 부채액은 1억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700만원) 늘었다. 사업장 점유형태를 보면 제주 사업장의 소유(자가) 비중은 전년보다 4%p(포인트) 감소한 31.1%로 조사됐다.

임차 비율은 전년보다 4%p 증가한 68.9%에 달했다. 임차한 사업장을 비율로 보면 보증부 월세가 61.9%로 가장 많았고 무보증부 월세 16.1%, 무상 14.6% 등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무보증부 월세는 6%p 줄어들었다. 도내 보증부 월세의 경우 평균 보증금 1415만원에 월세 92만원이었고, 무보증부 월세는 평균 56만원, 전세는 6391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보증금 월세는 평균 보증금이 280만원, 월세 3만원이 줄어들었다. 무보증부 월세도 9만원 감소했다. 전국의 보증부 월세는 평균 보증금 2166만원에 월세 118만원이었고, 무보증부 월세는 73만원으로 조사됐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전통시장 화재에 취약한데...

제주 상인 공제보험 가입률 전국 최저 수준

전국 24.6%... 제주 17.5%
도는 공제료 지원도 안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화재공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주에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입률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 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 비율은 24.6%에 불과한 수준이다. 더욱이 제주를 올해 9월 기준 도내 전통시장 점포 3711개(2020년 기준) 중 648개로 화재공제 가입률이 17.5%에 그쳤다. 화재공제 가입 점포 수가 49개 이던 2018년보다는 12배 넘게 늘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는 서울(16.7%)에 이어 두 번째로 화재공제 가입률이 낮았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는 전통시장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국

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이달 26일 현재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건수는 2020년 2건, 2021년 3건 등 총 5건으로 29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특히 17개 광역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는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화재공제료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제주도를 포함한 인천, 광주, 대전, 세종 등 5개 지자체는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전통시장 상인에게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지 않은 5개 지자체에 대해 조례 등에 지원 근거를 마련, 전통시장 상인에게 화재공제료를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 가운데 미등록 사업자의 화재공제 가입을 위해 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화재공제 가입 방안을 마련하도록 중기부에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이달 권익위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 받았고, 내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제주, ‘워케이션’ 성지로 뜬다

메타버스 노마드 시범 참가자 만족도 높아

2022년 메타버스 노마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제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주관하는 2022년 메타버스 노마드 시범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27개 기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0점 이상의 만족도(7점 만점에 6.3점)를 보이며 96%가 재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노마드는 디지털(Digital)과 유목민(Nomad)의 합성어로 주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장소에 상관하지 않고 여기저기 이동하며 업무를 보는 이를 일컫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27개 기업, 121명의 도외 기업 참가자들은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공유오피스 ‘대정 스페이스 모노’를 이용해 원격근무를 진행하고, 돌고래

투어, 밀감 따기 등 4박5일간 지역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제주도의 워케이션 환경의 성공 가능성을 경험했다. 참가기업들은 대다수가 IT 전문 분야 기업이며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대구, 충남 등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했다. 이들은 메타버스(가상공간)에 접속해 단말기(헤드셋)를 착용, 가상회의 공간을 이용하는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일과 휴식을 병행하며 업무효율을 높이는 ‘워케이션’ 근무를 진행했으며 기업 인턴, 사원, 팀장, 대표이사까지 다양한 직급들이 어울려 제주 메타버스 노마드 시범사업을 즐겼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지역특화프로그램을 연계해 원격근무와 힐링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원격근무 환경의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소비자심리지수 3개월 만에 반등 12월 소비자심리지수(OCSI)가 3개월만에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3.4포인트 상승한 89.9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반등했다.

누웨마루 성탄절 행사 도민 등 2만여명 찾아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에서 한 달 가까이 진행된 크리스마스 행사장에 도민과 관광객 등 2만여명이 찾아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27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이태원 사고 여파로 차갑게 얼어붙은 지역상권에 온기를 불어 넣기 위해 연동주민센터, 누웨마루상가번영회와 함께 지난 1~25일 신제주권 대표 상권인 누웨마루-더 크리스마스'를 개최했다.

이 기간 누웨마루 거리에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벤치 트리를 비롯해 산타·루돌프캐롤 등 대형 공기조형물, 별과 선물상자 등으로 구성된 크리스마스 포토존을 곳곳에 설치해 이곳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크리스마스 염서를 쓰고 1년 뒤에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느린 편지 이벤트도 진행했다. 행사기간 2만2286명의 도민과 관광객들이 행사장을 찾았고 방문객 200명의 표본 조사를 통해 도민은 71.5%, 관광객은 28.5%인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소정기자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요목

유라조생	2~3년생
유라실생	5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탈라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평	3년생
진지향	3년생
빙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윈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아마나스, 레몬, 맹자(1년생 300원, 2년생 400원)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배니(궁천변이), 유라실생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생 본당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근도로본)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레드향 1~5년생

- 사라향 • 탐나는봉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카라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탈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대)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포트묘목
▶ 전방위 형성과 뿌리상생 방지
▶ 미수익기간 단축
▶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작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할 하지 않아 뿌리상생이 적고 전방위 형성에 좋으며 미수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갈 / 금갈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계장원농장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푸른지계

농업회사법인(주)장원농장
제1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술리 3083 / 제2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술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3-20-01호

010-4450-4316 / 010-6550-4316